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3주일

제36권 14호(다해) 2016년 2월28일

[묵사]



<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

##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것은 어쩌면,  
포도밭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연한 처사.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제 역할을 못하는 무화과나무지만,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기회(機會)를 주신 하느님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은  
하느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실망시킨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밭 핑계되지 말고, 나무 핑계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노력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락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     |                             |                |                       |
|-----|-----------------------------|----------------|-----------------------|
| 월요일 | 새벽 미사                       | 오전             | 6:30                  |
| 화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 8:30                  |
| 토요일 | 신심 미사(첫 토요일)<br>저녁 미사(청년미사) | 오전<br>오후       | 8:30<br>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br>오전<br>오전 | 7:30<br>9:30<br>11:00 |

## 주간행사동

|     |                                                                                                                                                |                                                                                   |
|-----|------------------------------------------------------------------------------------------------------------------------------------------------|-----------------------------------------------------------------------------------|
| 수요일 | 레지오 마리아                                                                                                                                        | 오후 8:00                                                                           |
| 목요일 | 성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예비자 교리반<br>성령기도회<br>울뜨레아(넷째주)<br>성소후원회(첫 목요일)                                                                         | 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00<br>오후 8:30                    |
| 금요일 |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 오전 9:30                                                                           |
| 토요일 |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br>제대회 모임(첫토요일)<br>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br>배론청년회 모임                                                                                 | 오후 4:00<br>오전 10:00<br>오후 6:00<br>저녁 미사후                                          |
| 주일  | 레지오 마리아<br>아도라페 성가대<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탄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br>오후 1:00<br>3째주 - ● 요셉회<br>4째주 - ● 사목회 | 오전 중<br>오전 8:3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3:00<br>오후 1:30<br>오후 1:00<br>오후 1:00 |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한국 교회의 역사

|                |                                                                                                                                                                                                                                                                                                          |
|----------------|----------------------------------------------------------------------------------------------------------------------------------------------------------------------------------------------------------------------------------------------------------------------------------------------------------|
| 토요<br>저녁<br>미사 | (연)<br>(생) 박정순 토마스 아퀴나스                                                                                                                                                                                                                                                                                  |
| 주일<br>낮<br>미사  |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br>고준희 제임스, 이사람 로벨도,<br>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현시영 요셉,<br>이종수 마틴, 홍주희 안나 & 유우하네 안나,<br>이용식 베드로 & 이티나 우슬라, 이장엽 바오로,<br>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연옥영혼, 최천옥 말가리파<br><br>(생) 황윤제 베드로가정, 서성용 베드로,<br>오신재 데히틸다, 신덕례 테레사, 최석원 안드레아,<br>엄세종 그레고리오 & 엄영숙 마리아,<br>민석준 토마스 & 미애 & 영준 마르코, 박정미 클라라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1-8 ㄷ.13-15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주님은 정의의 열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셨네.㉠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제 2독서 코린도1서(Corinthians) 10,1-6.10-12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루카 (Luke) 루카 13,1-9

영성제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3. 신자들의 생활

3-2. 신앙과 사회의식

1790년대에 영세 입교한 백정 출신 황일광(黃日光, 1756~1802년)은 입교 후 교우들한테 받은 평등한 대우에 감격하여, 자신은 지상 천국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군명' 등과 같은 신자들은 천주교에서 '인간 평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세 직후 자신이 거느리던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사노비가 해방된 때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이다. 이보다 1백 년을 앞서 천주교 신앙은 노비를 해방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의 천주교 신앙은 '종교적 복음'임과 동시에 일종의 '사회적 복음'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복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1790년대 이후의 교회에서는 신분이 낮은 민중들이 신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교우촌을 형성하여 모두살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1791년의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신자들이 모여 살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801년의 박해 때에 황사영이 피신했던 배론의 경우에도 내포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여들면서 형성된 곳이다. 이것이 교우촌의 초기 형태로 배론 이외에 전라도 차돌배이, 경상도 신나무골 등은 대표적 교우촌이다. 교우촌은 회장의 지도 아래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영위하기도 하였다. 박해 시대 교우촌에서 재산을 공유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개항 직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조선에 들어왔던 한 프랑스 선교사는 이 교우촌을 사도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비유하였다.

“신입 교우들의 협동심은 감탄스럽습니다. 그중에서 뛰어난 미덕은 그들 서로가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현세의 재물이 궁핍하지만,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조금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공소를 돌아보노라면 마치 제가 초대 교회에 와 있는 듯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의 신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빈과 형제적인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았습시다. 이곳의 예비자들도 선배 형제들의 표양을 본받고 있습니다”(1889. 4. 22. 보두네 신부의 편지).

< 계속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특전)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시작 | 155      | 156   | 155  |
| 봉헌 | 257      | 268   | 264  |
| 성체 | 303      | 106   | 296  |
| 파견 | 239      | 155   | 158  |

## 구경꾼의 자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선택하는 회심의 삶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섯 번 이상 모세의 마음을 자극하여 응답하도록 이끄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인들에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살인자로 취급하였고 그는 실의에 빠져 미디안으로 떠나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사명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느님을 이집트의 태양신과 비교하며 다섯 번씩이나 거절하였지만 하느님과 대화를 지속하는 중에 점차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된 것입니다.

불 떨기 속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을 지녔듯,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영적 양식과 음료는 시련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서 약한 처녀들에게 사나운 목동들이 행한 폭력을 보고 폭력보다는 비폭력으로 이겨나가는 사랑의 지혜를 체험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와 같은 모세의 체험을 통해 사랑의 힘이 자신에게 스며들어 충전될 때 어떤 시련과 유혹도 극복시켜주신다는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전제로 예수님은 빌라도가 갈

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이야기 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갈릴래아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 태도를 바꾸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더 큰 재난을 겪는 것이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자신 안에 충전되도록 머무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호기심 어린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영신 수련을 하면서 깨달은 회심의 원동력은 하느님과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의식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과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선택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회심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때에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 13,5)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 이번주 전례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곽수진<br>보나      | 박희자<br>마리아 | 송인선<br>안젤라  |
| 제1독서자 | 곽수민<br>히메리오    | 박혜경<br>레나타 | 장영진<br>안토니오 |
| 제2독서자 | 이만석<br>미카엘     | 한경숙<br>안나  | 강혜원<br>아네스  |
| 제물봉헌자 |                |            | PV<br>3반    |

### 다음주 전례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곽수진<br>보나      | 신덕례<br>데레사 | 송인선<br>안젤라  |
| 제1독서자 | 정진욱<br>노엘      | 김교복<br>레오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2독서자 | 시무궁<br>루이스     | 김금자<br>데레사 | 정명모<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동<br>1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사순시기 +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 4/16 (금)- 요셉회  
3/11/16 (금)- 소공동체  
3/18/16 (금)- 본당 꾸리아  
3/25/16(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17일(목요일)  
● 참회예절 : 7시(저녁미사 없음)  
● 고백성사 : 7시 30분 시작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 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 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금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3월24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사순기간동안 매주 낮미사 중(11시)에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3월 4일 (금) ~ 3월 6일 (일)
- 장소: St Anne Retreat Center  
30480 Fredalba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체크인: 3월4일 (금) 오후 3시30분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여벌 옷, 미사에물, 성경, 묵주, 필기도구
- 아이들이 늦지 않게 도착 할 수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필사: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대상: 3학년 ~ 12학년
- 기간: 2월 21일(주일) ~ 3월 19일(토)까지  
(3월 20일 일요일에 담당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시상: 부활대축일 미사중(3월 27일)

#### ◆ 주일학교 밴드부 단원 모집

- 주일학교 밴드부에서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은 주일학교 밴드부 담당 선생님께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교사: Vivian Yi ☎ 310-402-9422

####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 초등부  
Feb.28: K, 1st grade  
March 6: 4th,5th grade  
March 13: 2nd grade  
March 20: 3rd grade
- F.I.G.S. Jr & F.I.G.S. : 3/4 - 3/6 (사순 피정중)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 29일 (금) - 7월 31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환불 불가능)
- 신청기간: 1월 24일 - 2월 28일 (주일학교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마감일 이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선착순 30명
- 문의: 김낙기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 28일 \*PV1반 : 육개장 (\$3)  
\* 주일학교 : 미트볼 샌드위치(6학년)
- 3월 6일 \* 소공동체 : 김밥 (\$4), 사발면(\$2)  
\* 주일학교 : 무수비 (5학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교무금             | 강태홍 | 고천용 | 권태만 | 김광자 | 김교복 | 김대우 |             | 강태홍 | 고천용 | 권태만 | 김교복 | 김대우 | 김윤진 |                 |  |  |  |  |  |  |
|                 | 김병철 | 김병태 | 김윤진 | 김정선 | 김 준 | 김준호 |             | 김 준 | 김준호 | 남명자 | 남인구 | 박상준 | 박운모 |                 |  |  |  |  |  |  |
|                 | 김형순 | 남명자 | 남인구 | 박상준 | 박운모 | 박음전 |             | 박음전 | 박정자 | 신순철 | 오수인 | 원건희 | 이병우 |                 |  |  |  |  |  |  |
|                 | 박정자 | 박혜정 | 송재훈 | 신순철 | 엄세중 | 오상준 |             | 이상곤 | 이우성 | 이인석 | 이정분 | 이현주 | 임 순 |                 |  |  |  |  |  |  |
|                 | 오수인 | 원건희 | 윤석구 | 이병우 | 이상곤 | 이서연 |             | 장영진 | 정정현 | 최재은 | 한창주 | 황지영 |     |                 |  |  |  |  |  |  |
|                 | 이우성 | 이인석 | 이재철 | 이정분 | 이현주 | 임 순 |             |     |     |     |     |     |     |                 |  |  |  |  |  |  |
|                 | 장영진 | 장은희 | 정정현 | 채양석 | 최순옥 | 최의수 |             |     |     |     |     |     |     |                 |  |  |  |  |  |  |
|                 | 최재은 | 한창주 | 황지영 |     |     |     |             |     |     |     |     |     |     | 합계 : \$1,875    |  |  |  |  |  |  |
| 합계:\$4,790      |     |     |     |     |     |     |             |     |     |     |     |     |     |                 |  |  |  |  |  |  |
| 주일미사헌금 :\$3,019 |     |     |     |     |     |     | 달력광고후원\$212 |     |     |     |     |     |     | 감사헌금:\$100(엄세중) |  |  |  |  |  |  |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매주 금요일 (7:00~8:30pm)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에 콘을 설치합니다. 아이들을 픽업하실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하신 후 아이들을 데리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반기주 소식

◆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909)576-5773, (562)292-8999

◆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강좌안내

●면형강학회: (교회사와 순교자 영성을 중심으로)

세계 천주교회사 안에서 조선 후기시대를 조망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구원사, 영성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지 순례를 통하여 신앙을 쇄신하고 영성을 심화합니다.

-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첫 강학일 : 2016년 4월 4일

●“영혼의 빛” 모임(한국교회가 낳은 영성의 큰 스승 방유통 신부님의 영성 공부)

핵심영성: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설립자이신 방유통 신부님의 영성은 늘 깨어 있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완전케 하는 점성(dot)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비우고 정화하여 하느님 안에 사랑으로 몰입되는 침묵(silence)과 대월의 삶(face to face with God)을 통해 하느님과 합일하는 면형무아(Eucharistic Kenosis)의 영성입니다.

- 일 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개 강 : 2016년 3월 1일

- 장 소 :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 내 순교자 영성센터
- 기타 문의 : (562) 461-8100

|                                  |             |                         |                                       |
|----------------------------------|-------------|-------------------------|---------------------------------------|
| 소공동체 부 장                         |             | 김 준 방지거 625-3312        |                                       |
| 구역/장                             | 번           | 반 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김춘자<br>막달레나<br>539-3377 | 1           | 강순복 요세피나<br>991-4838    | 최성자 카타리나<br>2/3(수) 오후 4시              |
|                                  | 2           | 장수영 패트릭<br>781-0787     | 김찬구 요한<br>2/13( 토) 오후 6시 ,장당          |
|                                  | 3           | 윤미애 안나<br>560-7120      | 윤미애 안나<br>2/19 (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토런스 서<br>엄혜은<br>도로테아<br>200-0512 | 1           | 김정심크리스티나<br>490-9662    | 강혜원 아녜스<br>2/20(토)오후6시                |
|                                  | 2           | 윤경옥 실비아<br>909-557-7490 | 윤화경 바오로<br>2/13 (토) 오후5시              |
|                                  | 3           | 박명순 안나<br>968-7600      | 정광미 프란치스카<br>2/12(금) 오전10시 30분, 성당    |
| 토런스 남<br>최옥희<br>테레사<br>508-2912  | 1           | 김준 방지거<br>625-3312      | '십자가의길'로 대체                           |
|                                  | 2           | 박정람 마르시아<br>634-6923    | 임미숙로사<br>2/9(화) 오전11시, 성당             |
|                                  | 3           | 김유미 사비나<br>738-5305     | 이희경 크리스티나818-6903<br>2/13(토) 오후 6시30분 |
| 토런스 북<br>정병욱올리아<br>404-1607      | 1           | 황지영 안젤라<br>938-8089     | 조화숙 안젤라<br>2/15(월) 오후 7시, 성당          |
|                                  | 2           | 1반과 같음                  |                                       |
| 하버 카슨<br>주대종 다니엘                 | 1<br>/<br>2 | 박진수 스테파노<br>749-3151    | 천교 자리후, 성당<br>2/21(주일)                |
| P. V.<br>남경희<br>베네딕다<br>384-3289 | 1           | 남해나 베네딕다<br>384-3289    | 십자가의 길<br>2/12(금) 오후 7시30분            |
|                                  | 2           | 유지아 클라라<br>793-6157     | 이정미 아녜스<br>2/13(금) 오후 7시              |
|                                  | 3           | 송인선 안젤라<br>503-927-0770 | 김병록 요셉<br>2/5(금) 오후 7시                |
|                                  | 4           | 이귀란 아녜스<br>617-3568     | 박운모 아가다, 성당<br>2/9(화) 오전 10시30분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사목 회의    |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 구역장/반장모임 | 1시 |

[길을찾는 그대에게]

저는 오랫동안 레지오 단장 등 여러 단체의 간부를 맡아 왔습니다. 지금은 본당 사목회 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살펴보니 성당 일을 하기엔 정말 행편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이제야 성당에서의 봉사를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성당에서의 봉사는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달리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려 주셨습니다.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지만, 왕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왕은 그 빚을 공짜로 탕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쉬운 방법을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빚진 이들에게 똑같이 자비롭고, 인자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 빚을 갚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은 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뛰어나고 거룩해서 사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제로서의 사목은 거의 뛰어나, 우월함,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었기에,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진 빚을 갚는 정말 손쉬운 방법을 하느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성당에서의 봉사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손쉽게 갚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 장궤틀의 추억

계.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응.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옛날 미사 때는 남여 신자석이 구분돼 있었다. 요즈음도 시골 공소에 가면 남여 신자들이 자연스레 구분해 앉는 곳이 있다. 그 시절 모든 기도를 바칠 때 남여 신자들이 주송과 응송을 주고받으며 기도를 바쳤다. 그러다 보니 ‘고백기도’의 경우 시작하는 게 부분은 남자들, 응 부분은 여자 신자들이 나눠

서 바쳤다. 당연히 여자 신자들은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만을 반복했다.

어느 할머니가 신부님께 항의했다. “죄 짓는 것이 맨날 여자 탓이라고 가슴까지 쳐야 하는교. 계송과 응송을 바꿔시더.” 신부님 답변이 재미있다. “인류의 원죄는 이브가 유혹에 넘어간데서 시작된 것이므로 모든 죄는 여자들 탓 아니고. 못 바꿔시더.”

고백기도를 두고 못자고 지어낸 유머이지만, 옛날 성당 모습이 그림다. 계와 응송을 나눠서 하다 보면 서로 경쟁하듯이 기도 소리에 간절함이 배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연히 기도소리는 성당 밖까지 들렸다. 요즈음 미사 때는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문을 정성껏 바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웅얼거리는 바람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는 사라진 장궤틀이다. 지금은 성당 맨 앞줄에만 장궤틀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최근에 영세받은 신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을 얹어 놓은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장궤(長?)는 몸을 똑바로 세운 채 오른쪽 무릎을 꿇거나 혹은 두 무릎을 대고 허리를 세운 채 꿇어앉는 일이다. 하느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자세로 아울러 겸손과 순종을 표현한다. 장궤틀조차 없던 시절에는 마룻마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린 시절에는 미사를 마치면 무릎이 빨갛게 아팠던 기억이 난다.

우리 본당에 아르헨티나 신자 한 명이 미사에 참여한다. 그분은 미사 때 우리가 일어서는 부분에서 거의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장궤틀을 한다. 그 이유를 아르헨티나 성당 순례를 가서 알았다. 성당 모든 신자석에는 장궤틀이 있었다.

간절한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장궤틀에서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가득 찬 성당이 그림다.

◆「김상진 요한 / 언론인

[재밌는 글]

숫자 4.5와 5가 있었다

5보다 낮은 4.5는 항상 5한테 형님이라 모시고

꼭듯이 예의를 차렸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에 예의 바르던 4.5가 반말을하며 거들먹거렸다

화가 난 5가

너 죽을래? 어디서 감히

그러자 4.5가 재려보면서 한말은?

..

..

..

나 점 뺏거든!!!!

◆마리아 사랑넷

##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사무엘 예언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 중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 하고 소리 질러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왕으로서 소질을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은 거룻소 한 쌍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10,17-11,7

사울은 결국 암몬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줄행랑을 쳤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 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길갈로 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11,8-15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백성들은 사울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그 후 필리스티아인들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의 병력이 막강하여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몹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 무엇이래 이야기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무엘 상13,1-14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많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사울은 하느님에게 버림을 받고 더욱더 궁지로 몰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민심을 잃고, 가장으로서도 가족들의 냉대를 받고, 스승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의 영웅이었고 큰 승리를 얻은 용사였지만, 신앙적으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던 사울 왕이지만 민심을 잃고 하느님의 징벌을 당하는 등 끝없이 추락하는 그의 삶은 우리 삶에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나는 사울을 ( )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 )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 )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1사무 15,11)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 )하면, ( )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1사무 12,15)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 성인말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습니다.

- 가경자 테클라 메를로 -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                |               |
|--------------|----------------|---------------|
| 주일           | 8시(오전)~4시(오후)  |               |
| 월            | CLOSED         |               |
| 화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수            | CLOSED         | 2:00~7:00(오후) |
| 목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금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토            | 9:30~11:30(오전) | 2:00~7:00(오후) |

#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열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모지매매

모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암

##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1110 LA(에퀴터빌)

##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웁(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B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 LA OFFICE<br>(FD2256)                                             | MAIN OFFICE<br>(FD1648)                                                            | South Bay Office<br>(FD2253)                                          |
|-------------------------------------------------------------------|------------------------------------------------------------------------------------|-----------------------------------------------------------------------|
| (213)568-3025(24hrs)<br>2717W.Olympic Bl.<br>#204<br>LA, CA 90010 | (562)622-9393(24hrs)<br>Fax (562)622-4843.<br>9830 Lakewood Bl<br>Downey, CA 90240 | (310)817-4337(24hrs)<br>16229 Western Ave.<br>#8<br>Gardena, CA 90247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